

'26.7.10.(금) 10:00

근로복지공단 서울 남부지사

말씀자료

2026. 7. 10.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근로복지공단 노조위원장님과 이사장님,

그리고 현장에서 묵묵히 준비를 해 오신

공단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고용보험 30년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어떤 형태로 일하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안아주는 나라.

그것이 「전 국민 고용보험」이 담고 있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완성해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첫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논의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고용보험은 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1,550만 명의 노동자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산업구조 변화와 AI·디지털 기술 발전 등으로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고용형태 역시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일터를 오가며 정해진 시간 없이 하루를 버터내는 분들, 출근시간도, 퇴근시간도 없이 그날 그날의 일감을 받아 일하는 분들까지,

이처럼 시간의 잣대로는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노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온 기존의 고용안전망만으로는 더 이상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를 두렵게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일하는 시간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의 새로운 문을 엽니다.

나아가, 일하는 사람이 고용보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이 소득정보를 바탕으로
일하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두터운 사회안전망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곳이,
바로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제도는 설제도일 뿐입니다.

그 설제도에 숨을 불어넣는 것은
결국 근로복지공단 직원 여러분의 손끝입니다.

매월 2,500만 건에 달하는 국세청 소득정보를 마주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일,

제도의 울타리 밖에 있던 이름 없는 노동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내는 일,

여러 일터를 오가며 일하는 노동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내하는 일,

그리고 낯선 기준 앞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노동자와 사업주를 이해시키는 일까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기준이 바뀌면 문의도, 이의제기도, 착오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의 무게를 가장 먼저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임을, 노동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소중합니다.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노동부의 몫이라면,
그것을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시키는 것은
근로복지공단 노사 여러분의 몫입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손을 맞잡고 갈 때,
비로소 고용보험의 역사적인 전환점을
무사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하위법령 준비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고,
전산 시스템 등 인프라를 포함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27년 1월,
이 제도가 국민의 삶 속에
흔들림 없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진 이 준비가,
대한민국 고용보험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 시작에 함께 설 수 있어, 저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모든 일하는 국민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든
국가의 보호 안에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